

청정 승가 기대... 문제는 '실천'

조계종 1차 쇠신계획 의미와 과제

“물러섬 없는 쇠신으로 사부대중 공의의 중단 운영 초석을 놓겠다. 반드시 쇠신하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6월 7일 내놓은 쇠신계획안을 살펴보면 지난 5월 한국 불교를 뒤흔든 도박 파문과 승풍실추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방안으로 채워졌다.

이번 쇠신계획의 골자는 크게 △재정 투명화 △공명선거 실현 △승단 청정성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반면해진 한국 불교 재정에 대한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시스템 바꾸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사찰예산회계법'이 눈에 띈다. 스님은 수행과 교화·관리만 하고, 재가자가 사찰 운영과 실행을 담당하는 합리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사찰 재정을 전문 종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재정공개 실적을 주지 인사고과 때 적극 반영, 스님들은 오직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회계전문가 감사, 영수증 발급의 무효와 지출 예산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까지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종무원 양성 △사찰재정 공개 △사찰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무게를 둔 건 '사찰재정의 투명성 강화'다. 이는 대형 사찰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금권, 부정 선거 등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승려가 사찰 재정에 손을 댄다는 건 진일보한 신선한 쇠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승려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찰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찰의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주지가 절 수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돈 선거 논란,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사찰 재정 공개가 전면 시행되지는 않는다. 일단 올해는 직영사찰과 일부 직할교구 사찰이 대상이다. 서울의 조계사·봉은사·약사사, 대구의 선본사, 강화도의 보문사 등 5개 직영사찰과 서울·수

재정·선거·청정성에 주안점 직영 및 일부 직할 사찰 재정 공개 야단법석서 '실천의지' 강조 종법 재계정 총회 협조 관건

도권에 있는 직할교구 17개 사찰의 실행을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교구 본사와 특별부담금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 등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선거의 모든 비용을 종단과 해당 본사가 지출해 후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공용제 도입과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위원회'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쇠신 계획에 대해 불교계는 전반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용 스님은 "재정 투명화, 직선제 논의 등 일련의



조계종 자성과쇠신결사추진본부가 3일간 주최한 야단법석에서 한 스님이 종단 쇠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종단이 쇠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쇠신 계획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계획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사찰운영과 울장에는 아직 필요한 연구들이 많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몽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교시민사회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들 대부분을 종단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1차 쇠신계획의 성패는 종단 사부대중의 '실천'이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계종 자성과쇠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이 6월 5, 6, 7일 세 차례 연속으로 개최한 야단법석에서 쏟아진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다.

3일 내내 야단법석에 참가한 봉은사 평담 거사는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모두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은혜사 인근 불자는 "이런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말사 주지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쉽게

동참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쇠신계획은 오늘 같은 대중공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며 "사찰, 단체, 불교 모임에서 이를 깊이 논의하고 살을 붙여나가 공의를 모으면 쇠신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쇠신으로 가는 길목 중 첫 번째 고개는 오는 6월 21일 열리는 중앙총회 임시회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사찰 운영위원회' 등 쇠신계획과 관련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앙총회의 결정이 쇠신의 1차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은 6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종헌 중 법의 관여도는 쇠신계획들은 총회의원이 논의에 결맞은 종헌 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공은 조계종 중앙총회로 넘어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참회' 대장정 회향 부산과 경남지역 범종단 스님들의 수행결사공도체인 무심회(회장 범정)는 28일간 진행한 참회의 국토순례대장정을 6월 5일 조계사에서 회향했다. 조계사 일주문을 지나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하는 무심회 스님들에게는 불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부산 시민광장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5월 9일부터 이날 순례까지 28일간 스님들이 걸은 거리는 720km에 달했다. 스님들은 부산을 출발해 서울 조계사까지 험난한 길을 두발로 직접 걸었다. 글=노덕현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전법단, 해외사찰 지원 나서

7일 전체회의... 단장 계성 스님 직접 미주 순례

조계종 전법단(단장 계성)이 국내를 비롯한 국제포교 활성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전법단은 6월 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전법단 대표 회의를 갖고 '전법단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전법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포교강화와 더불어 국제포교전법을 위한 미주지역 전법순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주지역 전법순회는 해외교구 및 미주지역 사찰의 포교활성화를 목표로 전법단장 계성 스님이 직접 순회에 나선다.

계성 스님은 "미국에 크고 작은 사찰이 130여 곳이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는 인력 문제인 것으로 안다. 법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지 직접 확인 후, 종단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어를 잘하는 스님을 추천받아 3~6개월 마다 파견할 계획"이라며 "미국 전법순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유럽포교활동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성 스님은 ▷6월 17일 미국 뉴욕 원각사 24일 보스턴 문수사 ▷7월 1일 뉴욕 불광선원, 7월 8일 필라델피아 관음사, 7월 15일 뉴욕 원각사 ▷8월 5일 LA 정혜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대행 스님 부의금' 군포교 위해 기탁

안양 한마음선원 논산 법당 기금 2억원 쾌척

5월 22일 원직에 든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자비 원력을 잇기 위해 문도들이 군포교 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해원)은 6월 5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논산 군법당 건립 기금 2억 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금은故대행 스님의 장례기간 동안 접수된 조문비로, 문도들은 이를 청년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 진흥을 위해 기부한 것이다.

기금 전달 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대행 스님이 입적해 상심이 크신 데도 종단 불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 감사

하다"며 "군포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한마음 선원의 기금으로 부족했던 불사 기금이 많이 충당됐다. 선원 대중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포교하겠다"고 밝혔다.

이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해원 스님은 "많은 도움이 됐다니 대행 스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한마음선원 재단 부이사장 해수 스님 등이 함께 자리했다.

글=신종일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6월 5일 논산 군법당 건립기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금은故대행 스님 부의금을 모아 문도들이 마련한 것이다. 왼쪽부터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군종특별교구장 자광·총무원장 자승·한마음선원 주지 해원·한마음선원재단 부이사장 해수 스님.

불교계 불법 사찰 논란 확산

조계종, 대불청 등 사찰 진상 촉구

불교계 민간 불법 사찰 정황이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근 불거진 불교계 불법 사찰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변인 능도 스님(기획실장)은 논평을 통해 "서울신문이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사찰의 일단을 밝혔다"며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얼마 전 입적하신 전 총무원장 가산 당 지관 대종사도 있었다. 정권 초기 종교

편향에 대한 강력 항의한 데대해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에 대해 그 실상을 공개하고 불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은 6월 5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불교계 사찰을 자행해 온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불청·대불련은 "최근 불교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불교계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종일·이은정 기자

<바로 잡습니다>

6월 6일자 891호 1면 대행스님 영결·다비시 기사 제목 중 전국비구회장 염수를 '전국비구회장 염수'로 바로잡습니다.

5월 30일자 890호 23면 사부대중 칼럼 필진 헤만 스님의 직함을 전 조계종 호법국장에서 '前 조계종 조사국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불기 2556(2012)년 하반기 연수교육 안내

불기2556(2012)년 연수교육이 5월말 현재 1,700여 명의 스님들이 수료하면서 원만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들께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말사 주지스님들께서는 매년 개설된 강좌 중 1개 강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연수교육 강좌는 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하였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강좌와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 1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 2 2012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 3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및 시간

- 1 일 반 연 수 과 정 : 2박 3일, 12시간 이상
- 2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4박 5일, 25시간 이상

■ 교육장소

- 1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 2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접 수

- 1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 (<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연수교육신청' 코너를 클릭하거나, 위 연수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스님들은 교육원에 전화로 연락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교육비는 강좌 일주일 전에 입금하여 주시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교육비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 : 5만원 감액
- ※ 연수교육 강좌를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 : 5만원 감액 (2회차 교육부터 적용)
- ※ 승납 10년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 : 10만원 감액 (2회차 교육부터 적용)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 -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 사찰명으로 입금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02-2011-1807~8, 1810 팩스) 02-732-4926

과정	강좌명	일정	강사	장소	교육비
선전(禪典)과정	천태지관과 임제가공	9. 22 ~ 24	학담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선문단련설	9. 25 ~ 27	월호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백일법문	10.10 ~ 12	고우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진심직설	10.24 ~ 26	현봉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초기불교의 정수	7. 23 ~ 25	각목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중론	8. 8 ~ 10	김성철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삼장(三藏)과정	유가사지론(보살지론 중심)으로	9. 4 ~ 6	혜거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대방광의 세계(반야불교신행문)	9. 19 ~ 21	해담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현대건축 이야기	7. 27 ~ 29	이희봉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인문 사회 문화 과정	서양사상의 흐름 (그리스철학에서 현대철학까지)	8. 4 ~ 6	김종욱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불교와 자연과학 (물리학, 천문학, 뇌과학)	8. 6 ~ 8	정영록, 이시우, 박문호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8. 20 ~ 22	우희중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 운영 과정	동양문화의 이해	9. 25 ~ 27	조용현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수행과 건강	10. 4 ~ 6	최상용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경영지도자과정	9. 10 ~ 14, 11. 19 ~ 23	교육원	전통불교문화원	35만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시설 유지	9. 19 ~ 2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의 모연방법과 활동	10.22 ~ 24	이명희 외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경주남산불적대사	10. 5 ~ 7	신라문화원	경주남산대	20만원
전법 향상 과정	전통건축의 이해와 실습	10.10 ~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0만원
	차량상 이론과 실습	10. 11 ~ 13	지장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모바일 혁명과 미래지도	10. 17 ~ 19	김중태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전통시화과 불교장엄	10. 17 ~ 19	김태연	전통불교문화원	30만원
사찰 운영 과정	템플스테이 운영의 실제	10.23 ~ 25	문화사업단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리더십과 코칭	11. 8 ~ 10	김종영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연수교육 인증과정 안내는 각 사찰로 배포한 연수교육 안내 책자 및 종단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기 2556(2012)년 6월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